



끝없이 치솟던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교육은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가 갖추어야 할
창의성과 인성을 심어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선행학습과 암기위주의 사교육이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가치를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상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높은 점수나 남보다 높은 등수보다

빛나는 창의성, 남다른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따뜻한 인성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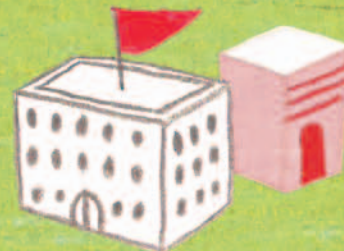


이런 능력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답은 변화하는 학교에 있습니다.

미래사회에 꼭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공교육과 입시제도가 달라졌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향해
공교육이 내민 손을 잡아주세요.





함께 내딛는 한걸음 한걸음에
모두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교육은 그대의 머리 속에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씨앗들이 자라나게 해 주는 것이다.

칼린 지브란

대한민국 사교육비가 줄고 있습니다

고민과 해답 – 학교교육

어릴 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어요	10
칼럼 <세계에 유례없는 지나친 선행학습, 득보다 실이 많다>	12
학교에서도 아이 수준에 딱 맞는 수업을 받을 수 있나요?	14
영어, 학교만 다녀도 될까요?	17
칼럼 <사교육 없이 집에서 실천하는 영어학습>	20
부모도 아이의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나요?	22
칼럼 <독서를 생활화하는 독서 지도 이렇게!>	24
맞벌이 하는 우리 부부, 방과 후에 우리 아이는 누가 돌봐주죠?	26

고민과 해답 – 진로진학

학교 생활에만 충실해도 특수목적고에 갈 수 있나요?	27
칼럼 <자기주도 학습능력, 학원에서 배울 수 없다>	30
수능 준비, EBS로 충분할까요?	32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알려 주세요	35
성적보다 중요한 건 아이의 진로라고 생각해요	39
칼럼 <일생을 좌우할 청소년기의 진로교육>	42
학원비, 왜 이렇게 비싼가요?	44
칼럼 <사교육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불안한 부모이다>	46

사교육비 걱정 끝!
학교수업 100% 활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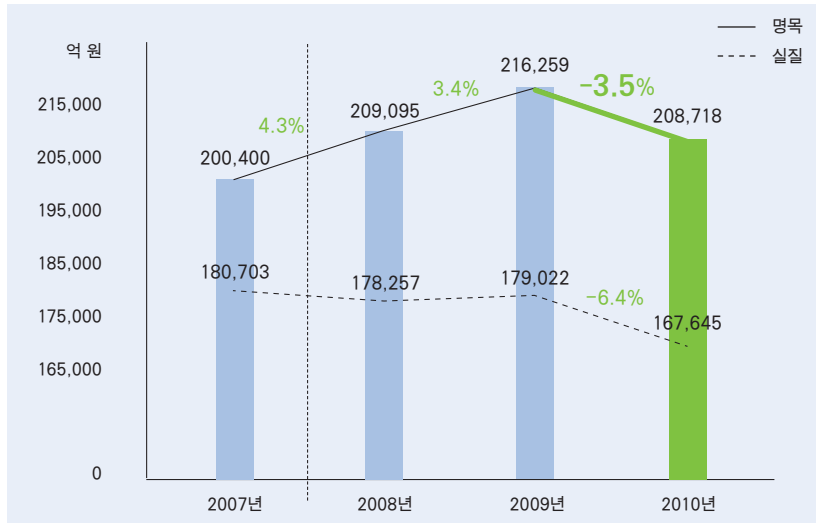
대한민국 사교육비가 줄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로 얼마나 쓰고 계세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사교육비로 얼마를 써야 할지 부담을 느끼시고, 다른 집 사정은 어떨지 궁금해 하십니다. 매년 실시되는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현황을 살펴 보았습니다.

첫째, 전체 사교육비 규모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교육비 총 규모〉



연평균 10% 이상씩 증가하던 사교육비는 2008~2009년에 3~4% 증가세로 완화되다가, 2010년에 처음으로 사교육비 총규모가 감소했습니다.

둘째,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 만 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2.2	23.3	24.2	24.0
1인당 월평균 실질사교육비	20.0	19.9	20.0	19.3
(사교육관련물가지수, 2005년=100)	110.9	117.3	120.8	124.5

새 학기가 찾아 올 때면 급증했던 사교육비가 2010년 전년대비 0.8% 감소했으며, 사교육 참여율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교육 참여율 : (2007) 77.0% → (2008) 75.1% → (2009) 75.0% → **(2010) 73.6%**

셋째, 학교급별 사교육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학교급별 사교육비 증감액〉

(단위 : 억 원, 천 명)

학교급	총 증감액(A)	학생수변동에 따른 증감액(B)	순 증감액 (A-B)	학생수 변동현황	
				2009	2010
초등학교	△5,229	△5,154	△75	3,474	3,299
중학교	△2,260	△978	△1,282	2,012	1,980
일반고	△341	358	△699	1,485	1,496
특성학교	289	△117	406	501	486
합 계	△7,541	△5,891	△1,650	7,472	7,261

넷째, 학원들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학원생산지수 증감률〉

(2011년 3월 / 산업활동동향조사, 통계청)

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년동월대비) 2010년 증감률	-2.7%	-3.8%	-1.2%	-1.4%	-7.1%	-5.9%	-1.3%

학원들의 매출액 추이를 나타내는 학원생산지수는 2010년 4월부터 마이너스 성장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 결과입니다.

어릴 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어요

폭넓은 경험을 통해 아이의 꿈도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체험을 하게 해주고 싶은데,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네요.
이런 부담, 학교에서 해결해 줄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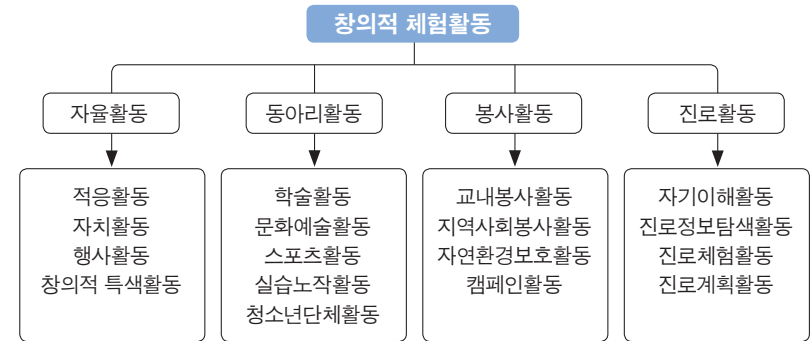


창의적 체험활동과 예술교육을 제공합니다

체험활동 활성화를 통해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꿈을 키우도록 지원합니다. 교육비가 부담되는 예술 과목을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합니다.

1.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통합 운영, 수업 시수 확대(고교 주당 2시간 → 4시간)
- 창의·인성교육넷, 에듀팟을 통해 체험활동을 체계적으로 선택, 관리하도록 지원



창의·인성교육넷 www.crezone.net

창의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수업자료,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

창의적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 www.edupot.go.kr

창의적 체험활동 이력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 자기주도적인 진로설계 능력 향상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을 교과외 활동의 참고자료로 활용 : 초·중등학교의 내실화

2. 학생 오케스트라 사업

- 문화예술기반이 취약한 지역 대상, 총 100개의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예정 (2011년 50개, 2012년 50개)

3. 과학과 예술의 융합, 예술교과교실

- 과학중점학교(100개교), 과학고등학교(19개교) 등 약 120개교에서 실시
- 과학적 창의성과 예술적 창의성, 인성을 함께 길러 차세대 핵심 창조인재 양성

세계에 유례없는 지나친 선행학습, 득보다 실이 많다

성균관대학교 사교육정책중점연구소장 김현철

파리에 사는 친구와 오랜만에 통화를 하는데, 프랑스의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선행 학습을 하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고 했다. 여기는 겨울방학이라고 학원마다 선행학습 홍보가 물결을 이루는데, 프랑스에서는 선행학습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싫어한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선행학습에 열을 올리는 나라가 또 있을까? 물론 사교육 시장에서 일어나는 선행학습이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지만, 선행학습은 득(得)보다 실(失)이 더 많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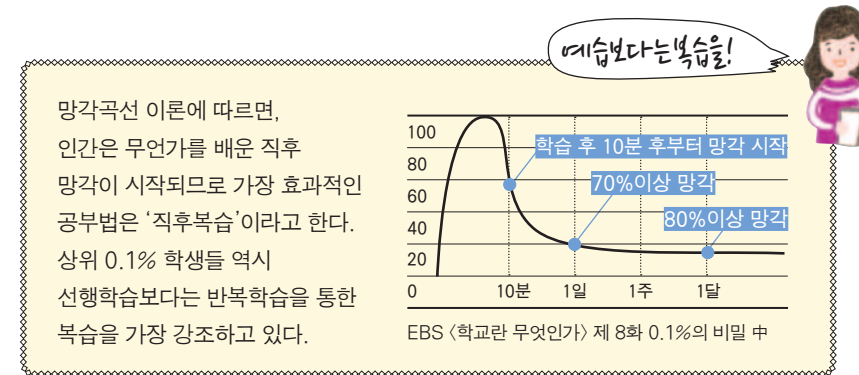
그렇다면, 선행학습의 실(失)은 무엇인가. 우선, 선행학습은 교실붕괴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통해 교과를 마친 학생들은 학교수업을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딴 짓을 하기가 쉽다. 이미 학습 내용을 알고 있다면 학교수업에 흥미를 잃게 되고 심한 경우, 교사를 무시하거나 친구를 알잡아 보는 등 대인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선행학습으로 사고력이 결여된 사상누각 학습을 하기 쉽다. 잘 알지 못하는 내용도 반복해서 들으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외워져서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을 안다고 착각해서 다음 진도를 나가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또 다른 내용이 추가되어 사상누각이 되기 쉽다. 그러다 보니 사고력이 적어지고, 본인이 이해하려는 자세보다 타인에 의하여 지식이 습득되어지길 기다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타의적 선행학습은 자기 주도적 학습의 약화를 가져온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취약한 학생비율이 22%로, 평가에 참가한 나라들 가운데 최하위로 기록된 바 있다. 특히 수학의 경우, OECD PISA 조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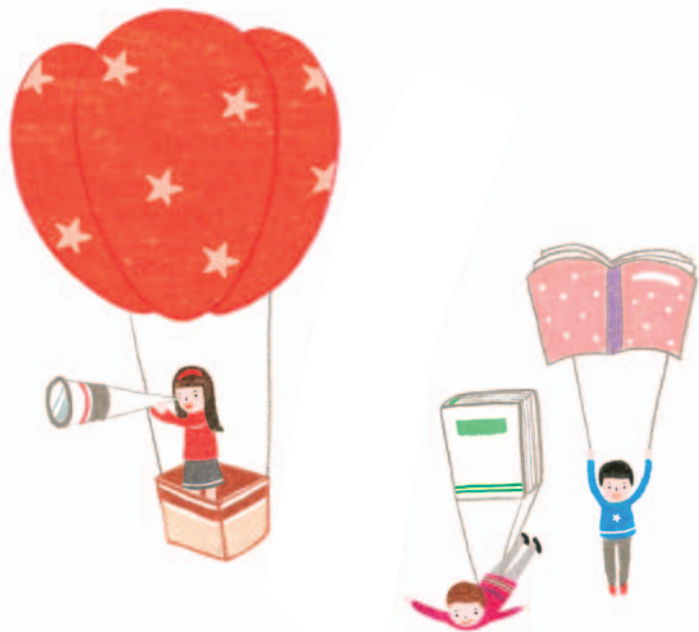
의하면 흥미도, 성취도 비교 조사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과성취도는 3위였지만 흥미도 면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수학은 기본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나서 응용 문제로 깊이를 다진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과목이다. 그러나 학습의 진정한 목표를 모른 채 진도만 빨리 나가 수학과목을 단순히 입시경쟁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선행학습의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리한 선행학습으로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세계에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과도한 선행학습을 돌아볼 때이다. 청소년 시기는 무한한 창의력과 상상력의 나래를 펼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칫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아이들이 이 시기에 누려야 할 다양한 취미활동과 여가생활, 독서를 통한 깨달음 등을 모두 놓칠 수 있다. 이것이 학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사교육비가 낭비되는 것 이상으로 선행학습이 주는 폐해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이다.



학교에서도 아이 수준에 딱 맞는 수업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 아이는 잘하는 과목은 재미있게 스스로 공부하지만,
 어려워하는 과목은 흥미도 별로 없어하는 것 같아요.
 과목별로 수준에 딱딱 맞는 수업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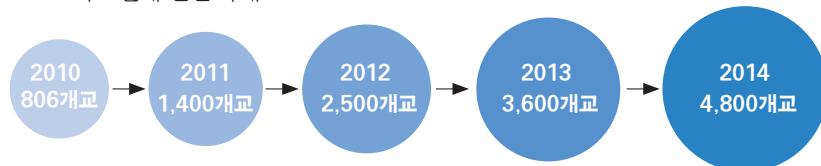


학교에서도 단계별, 수준별 수업이 가능합니다

학생의 적성과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교과별 특성이 반영된 교과교실제, 과목 중점학교와 연계한 수준별 학습이 운영됩니다.

1. 교과교실제 전면 도입

-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로 학생들이 이동하며 듣는 수업 방식
- 교과중심, 학생중심의 창의적 수업 구현, 2014년까지 중·고등학교에 교과교실제 전면 확대



2. 영어 중점학교(2011년 75개교)

- 의사소통능력과 실용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수·평가 방법 개선, 말하기 수행평가, 서술형 평가 확대
- 정규과정과 연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성화
- '정규과정 + 방과후학교 + 자기주도적 학습' 연계 모형 개발·구현
- EBS 영어교육방송 교재·프로그램 활용 수업 확대

3. 과학 중점학교(2011년 100개교)

- 2실 이상의 수학실과 4실 이상의 과학실 구비, 수학·과학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있는 교육 실시
- *고1 : '과학교양' 이수, 연간 60시간 이상의 수학·과학 체험활동, 모든 수학과목에서 '+1 수준별 수업' 실시
- *고2-3(중점과정) : 과학융합 및 2과목 이상의 전문교과 이수, 총 이수단위 45% 이상을 수학·과학으로 이수

4. 예술·체육 중점학교(2011년 음악13개교, 미술8개교, 체육7개교, 공연·영상2개교)

- 예술·체육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특성화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 중·고교에 예술·체육 중점과정을 설치, 심화교육 실시

쉬어가기

사교육 없는 학교는 어떤 곳일까요?

첫째,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해 교원과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둘째,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수준별 맞춤형 방과후학교를 운영합니다.

셋째, 학생들을 위한 학습컨설팅과 진로 상담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넷째, 교원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주기적인 연수를 실시합니다.

다섯째,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의 협력 속에서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사교육절감지원특임센터 소장 김순남

사교육 없는 학교란?

내실 있는 정규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충족한 방과후학습을 지원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사교육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교이다. 2011년 현재 600개교가 참여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www.schoolu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어, 학교만 다녀도 될까요?

요즘에는 어릴 때부터 영어 잘하는 애들이 워낙 많아서 우리 애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 걱정이 크네요.
이번 방학에 단기 어학 연수라도 보내야 하는 걸까요?

TIP! 영어 교육, 조기 교육보다 적기 교육이 중요합니다.

빈 컵과 돌이 든 컵에 물을 부으면 어느 컵이 더 빨리 채워질까요?

당연히 후자겠지요. 외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을 잘할수록, 다양한 배경지식을 갖출수록 더 빨리, 더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으로 성숙한 청소년기(10~13세)부터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영어 교육은 가능한 빨리 시작할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해야 합니다.





영어교육, 학교에 믿고 맡기세요

사교육 없이도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영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영어교육이 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능력과 필요에 따른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영어교육이 실현됩니다.

1. 입시와 취업 준비는 실용영어 중심의 학교 영어교육으로!

- 초등학교 5, 6학년 주당 1시간씩(2시간 → 3시간) 영어 수업시수 확대
 - 중·고등학교 수준별 영어수업 및 주 1회 영어회화 수업 운영
 - 실용영어(3급)와 기본학술영어(2급)로 특성화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 및 시범 평가 실시
- *수능영어 폐지 여부 결정(2012) 이후, 3년 예고기간을 거쳐 2015년(2016학년도 수능) 부터 수능영어 폐지 예정

2. 변화하는 영어교육, 학교 영어선생님들이 가장 잘 준비하고 있어요!

- 의사소통 중심 수업을 위해 해외연수를 포함한 영어교사 심화연수 실시
- 학교 단위 말하기·쓰기 평가방법 개선을 위해 특화 연수 실시
- 영어회화 전문강사(6,700여 명) 및 원어민 영어보조교사(8,500여 명) 배치로 학교 실용영어 교육 강화

3. 학부모의 기대와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방과후 영어교육!

- EBSe 교재 및 방송 콘텐츠 개발, 내신과 말하기·쓰기 표현 능력 향상 등 수업과 연계한 방과후 영어교육 강화 (2011년 하계방학부터)
- 역량 있는 민간기관을 활용한 방과후 영어교육 프로그램 확대

4. 영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어교육 환경!

-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3,777개교), 중등학교 영어전용교실(4,207개교)에서 다양한 교수학습법을 활용한 정규수업, 방과후 영어교육, 자율학습 실시
- EBS 영어교육방송(www.ebse.co.kr)을 통해 학생은 자기주도적 영어공부, 영어교사는 영어수업 자료준비 및 자기개발 가능

5. 학교 영어교육으로 지역간·계층간 영어교육 격차를 줄여요!

- 농산어촌 초등학교에 영어 모국어국가 재외동포·외국인 장학생(600명)을 배치하여 방과후 영어교육 실시
- 농산어촌, 도서벽지, 교육복지우선지역 학교(600개교)에 원어민 원격 화상강의 지원
- 원어민, 외국 대학생 등을 활용하여 영어취약계층 초등학생(10만 명) 대상 방학 중 영어캠프 운영

Interview

TaLK 선생님과 talk하니 대도시 학교도 안 부러워요!

경북 청송군 부남면 대전리 대전초등학교 교장 박영수

우리 학교는 전교생이러야 34명뿐이지만, 영어 선생님 한 분과 TaLK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덕분에 학부모들은 영어 사교육비가 안 든다며 좋아하고, 우리 교사들도 지역적인 한계 없이 미래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여건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TaLK 프로그램이란? Teach and Learn in Korea : 미국,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 재외동포·외국인 대학생을 초청, 농산어촌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영어강사로 활용하는 프로그램

사교육 없이 집에서 실천하는 영어학습

경희대학교 영미어학부 이상민교수

영어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영어 사교육은 필수가 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아이만 뒤처질까 하는 불안감에 학부모들은 중심을 잃는 경우가 많아졌다. 물론, 도움이 되는 사교육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비싼 돈을 들이지 않고도 가정에서 충분히 사교육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여기에서는 사교육 없이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학습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내 자녀를 파악하자

아이들은 그 다양한 얼굴모습만큼이나 다양한 개성, 인지능력, 학습능력, 경험 등을 갖고 있다. 그리고 목표와 꿈도 다르다. 어떤 아이들은 보면서 배우고, 어떤 아이들은 직접 행하면서 배우며, 어떤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책으로만 공부하는 방법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이 효과적인 학습방법이 될 수 있다.

지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자

지역 구청이나 시청 등에서 영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면, 자녀와 함께 정기적으로 방문하길 추천한다. 문학이나 이야기 책을 통해 영어를 배우는 것은 아주 효과적인 영어학습법이다. 또한 각 학교의 방과후 영어교육도 우수한 강사진과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사교육보다 저렴한 것도 큰 장점이니 잘 알아보고 아이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수강하자.

무료로 제공되는 학습자료들을 활용하자

대표적인 예가 영어교육방송인 EBS이다. 인터넷(www.ebse.co.kr)을 통해 8,000편 이상의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자녀의 연령과 필요에 따라 활용하면 된다. 이 때 엄마의 선택보다는 아이의 흥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자. 또한, 한국

교육학술정보원과 각 시도교육청의 각종 온라인영어학습 프로그램에서도 학년별로 언어의 각 영역에 걸쳐 학습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자

언어는 본질적으로 “사회적”이다. 따라서 혼자 공부하기보다 수준과 흥미가 비슷한 친구들과 그룹을 형성해서 같이 공부하면 더 즐겁게 영어공부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도서관에서 책 읽기도 그룹에서 함께 하면 적절한 경쟁을 통해 더 많은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독서 후에 토론, 발표, 협력과제 등을 해 볼 수 있다.

사교육 없이 영어공부를 한다면 영어실력과 함께 자기주도 학습능력도 함께 향상 시키는,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 남들이 다 하니까 하는 식의 영어교육을 피하고 자녀에게 적합한 영어학습법을 선택하고 더 나아가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는 오히려 사교육이 없을 때 더 효과적으로 터득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중심을 잃지 말고 위에서 조연한 방법들을 실천해 보자.

영어독서하기 TIP

영어독서를 할 때는 Silent Reading(소리내지 않고 읽기)을 통해서 speed reading을 키울 수도 있으나, 때로는 Reading Aloud(큰 소리로 읽기)를 하는 것도 영어독서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책을 읽고 난 후에는 독서노트를 쓰는 것이 좋는데 매번 쓰기가 어려우면, 읽은 책의 저자와 제목이라도 기록해서 아이가 스스로 독서이력을 관리하고 성취감을 얻도록 해주자.



부모도 아이의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나요?

아이가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정작 엄마들은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몰라요.
부모가 학교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생기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이 열려있습니다

학교와 가정의 긴밀히 협력할 때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전문성을 갖고 학교활동에 참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 학교정보를 한눈에, 학교알리미

- 수업공개 계획, 학교급식, 학업성취도 결과 등 전국 1만여 개 초·중·고의 주요정보를 공시
- 2010년 11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공시,
 2011년 11월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향상도 추가 공시 예정

학교알리미 www.schoolinfo.go.kr

2. 수업참관 기회 및 학교활동 참여 확대

- 연 2회 이상 수업을 공개, 자녀 학교 방문의 날 운영, 맞벌이 학부모를 위한 수업공개 시간 다양화
 *맞벌이 부부, 아버지의 참관기회 확대를 위해 토요일, 기타시간을 활용하여 수업 공개
- 학부모회 대상, 학교참여 활동계획서를 공모하여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부모교육, 자원봉사 등 지원 (2010년 2,792개 → 2011년 3,200개)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 및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학부모 코디네이터’ 운영
 *2010년 : 4800명, 241억 원 지원 → 2011년 : 4,913명, 247억 원 지원

3. 학부모교육 지원 내실화

- 학교, 연수원,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
- 지역여건 및 학부모 수요를 반영하여 자기주도 학습, 진로·진학 등에 대한 학부모교육 실시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운영하도록 장려하여 맞벌이 부부 등의 참여 편의성 제고

4. 학부모 모니터단 운영

- 교육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운영(오프라인 500명, 온라인 3,000명)



독서를 생활화하는 독서 지도 이렇게!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박효정

성장기에 읽은 책은 인생을 바꾸어 놓을 만큼 중요하다. 하지만 입시의 부담을 떠안고 있는 요즘 학생들에게는 독서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다. 입시준비와 학업, 그리고 그 학업을 위한 사교육 등으로 바쁜 아이들에게 시간을 쪼개어 책을 읽는다는 것은 또 다른 과제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시간이 없음을 탓하기 보다 미리 책 읽기를 생활화 해둔다면 독서와 공부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됨과 동시에 독서의 놀라운 효과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독서를 생활화 할 수 있을까?

어릴 때부터 책 읽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

독서를 통해 얻는 사고력, 독해력, 작문실력 등은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책 읽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이는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아이가 자연스럽게 책을 읽는 환경에 노출되게 해주는 게 좋다. 부모에게 선물 받은 책, 함께 간 서점, 엄마가 읽어준 책의 기억 등 유년시절의 추억은 책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게 한다. 그리고 이런 좋은 감정은 당연히 책 읽기 습관으로 이어진다.

즐거운 책 읽기를 위해 수준에 맞는 책을 선택하자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아이가 이해를 잘 못하면 읽기를 포기하게 되고, 결국에는 책 읽기를 싫어하게 될 것이다. 수준과 동시에 아이의 흥미를 고려하자.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충분히 읽게 한 후 새롭고 다양한 책을 읽도록 도와주자.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읽을 때 책과 친해진다.

독서와 공부는 별개가 아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학생들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만 공부하지는 않는다. 교과서 외의 다양한 영역의 책이나 신문의 사설에서 저자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에 대해 정리하고 표현할 줄 안다. 공부에 흥미를 붙이면서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부하기 때문에 다양한 학습자료를 이용하는 것인데, 독서를 통해서도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독서는 훌륭한 자기주도 학습의 방법이다.

토론과 글쓰기가 생활이 되도록 하자

책을 읽을 때에는 자신이 읽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책을 읽고 독서노트를 작성한다면 자연스럽게 글쓰기 훈련이 되어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자녀가 책을 읽은 후에 부모와 자녀 모두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여 토론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고와 논리적인 표현 방식을 궁리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폭넓은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독서로 쌓는 사고력



많은 상위권 학생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때, 성적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독서를 꼽는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특수목적고에 합격한 학생들은 후배들에게 “스펙에 연연하기 전에 독서에 신경 쓰라. 수학·과학 분야뿐 아니라 인문사회 도서까지 폭넓게 읽으며 사고력을 쌓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맞벌이 하는 우리 부모,
방과 후에 우리 아이는 누가 돌봐주죠?

엄마도, 아빠도 모두 회사에 있으니
누구라도 아이를 돌봐줘야지 않겠어요?
학원이 아니면, 아이 혼자 무얼 하며 시간을 보내겠어요.



방과 후엔 학교가 엄마가 되어 드립니다

정규 수업시간 전·후로 운영되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맞벌이하는 부모님과 아이들을 위한 대안이 학교에 있습니다.

1.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 맞벌이 가정을 위해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대에 자녀 돌봄서비스 제공
06:30~09:00 | 아침돌봄
방과후~17:00 | 오후돌봄
17:00~22:00 | 저녁돌봄
- 2011년 3월부터 유아 및 초등 대상 1,000여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
- 저소득층 참여비 무료(저소득층이 아닌 경우, 간식비 등의 부담이 있을 수 있음)

2. 방과후학교의 질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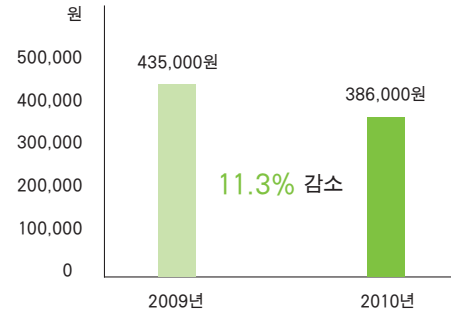
- 질 높은 프로그램과 검증된 우수강사 활용,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요에 맞는 방과후학교 운영
- 공신력있고 수준 높은 민간기관의 방과후학교 참여 확대

학교 생활에만 충실해도 특수목적고에 갈 수 있나요?

우리 아이는 수상경력이나 인증시험 점수는 없지만,
내신 성적도 좋고, 교내 활동에도 늘 열심히 참여했어요.
최근 입학전형이 바뀌었다는데, 우리 애도 특수목적고에 갈 수 있을까요?

TIP! 특수목적고, 사교육이 아닌 자기주도 학습으로 준비하세요

내신성적과 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사교육을 통해 스펙을 갖춘 학생이 아니라 학교 공부를 충실히 한 학생을 선발합니다. 따라서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토익, 토플 등의 인증시험 점수, 각종 경시대회 수상실적 등의 기재항목은 삭제됩니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도입에 따라 특수목적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사교육비와 각종 시험 응시자 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수목적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생의 사교육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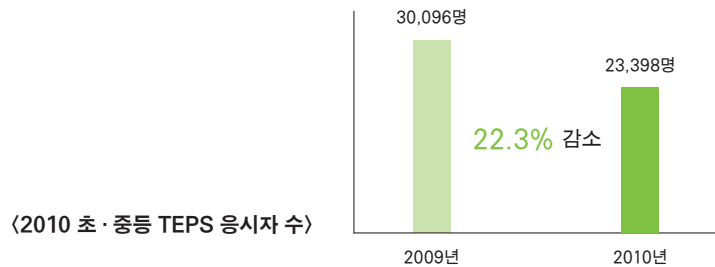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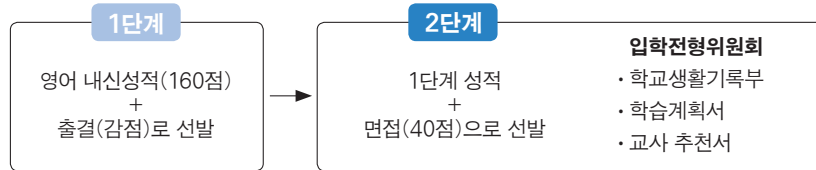
자기주도 학습이란?

학생이 주도적으로 목표를 세워 학습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학습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스펙이 아닌 잠재력으로 학생을 평가합니다

2011학년도부터 외고·국제고 등 특목고에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도입되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학교생활 속에서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과 잠재력 계발 노력이 필요합니다.

1. 외국어고(31개교), 국제고(6개교) 선발절차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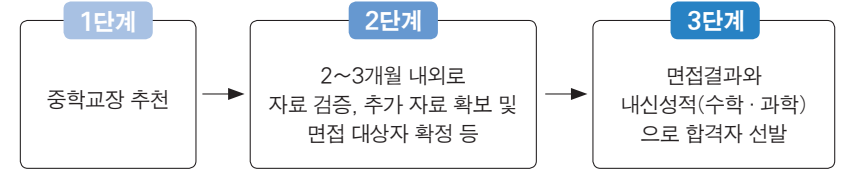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합격의 발판

대구일과학고 김아영 학생

저는 성적을 크게 올린 점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아 입학했어요. 낮은 수학 성적을 올리려고 선생님 농담까지 받아 적을 정도로 수업에 집중했고, 복습을 철저히 했어요. 1학년 때 전교 500명 중 220등이었던 수학 성적이 3학년이 되었을 때 상위 1%로 꺾충 뛰어 올랐답니다.

2. 과학고(20개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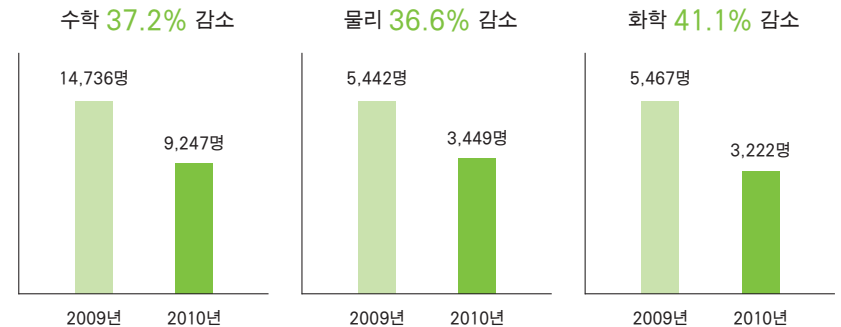
① 자기주도 학습전형



연도	비율
2011 학년도	31%
2012 학년도	50% 이상
2013 학년도	100%

〈과학고등학교 자기주도 학습전형 학생선발 비중〉

② 과학 창의성 전형



〈2010 중학생 올림피아드 응시자 수〉

자기주도 학습능력, 학원에서 배울 수 없다

마음누리클리닉 정찬호 원장

새로운 입시 전형들이 나오면 그때마다 어느 부모 할 것 없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기 마련이다. 요즘은 “자기주도적 학습”이 대유행이다. 아침 신문에 끼워져 오는 학원 광고지마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이 빠지지 않는다.

공부의 전 과정을 즐기는 학습지향적 공부

국제중학교를 준비중인 5학년 희찬이의 어머니는 얼마 전 자기주도 학습전형 설명회에 참석했다. “아이에게 어떤 스펙이 필요한지, 공부한 것에 대해 계획표는 어떻게 만드는지 등을 배웠는데, 학원에 등록하면 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나치게 고액이라 고민이에요.” 외국어고등학교를 준비하는 중학교 2학년 현주의 어머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영어내신이 중요하다는데, 지방으로 이사를 할까요? 영어도 벽찬데, 요즘에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이라고 봉사활동까지 해야 한다니. 너무 할 일이 많아요.” 다들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마음은 조급하면서도 정작 자기주도 학습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듯하다. 자기주도 학습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공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먼저 1등이나, 2등이나 상대적 위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수행지향적 공부가 있다. 그리고 지식습득 자체에 초점을 두는 학습지향적 공부가 있다. 스스로 동기를 세워 계획하고 실행한 후 평가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공부방법이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타율의존 학습의 문제점

사교육에 의존하는 중하위권 학생들이 상위권 학생들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의 차이에 있다. 그런데도 상당수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런 지적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학원에 가서 배우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게 그들의 생각이다. 물론 사교육이 도움을 주는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수동적인 공부를 지속하다 보면 스스로 핵심을 찾아 해결하는 능력이 쌓이지 않으며, 공부를 위한 시간관리 능력도 생겨나지 않는다. 자녀 교육에 대한 상담을 받으러 오는 학부모들조차 다짜고짜 ‘공부하는 비법부터 알려 달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다. 학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 드려도 막무가내. 수동적 공부가 익숙하다 보니 공부방법조차 주입이 가능하다고 여기시는 것 같다. 스스로 학습조차 타인을 의존해서 배우려고 한다면 아이러니 하지 않은가?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부모의 현명한 판단

학원에 다니고 과외를 받는데도 성적이 안 오른다고 고민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스스로 날지 못하는 새는 더 이상 새가 아니다. 스스로 공부하지 못하는 학생 역시 온전한 의미에서는 학생이라고 할 수 없다. 자기주도 학습은 성적을 올려주는 방법을 터득하는 과정인 동시에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헨리포드는 이렇게 말했다. “순수 장작을 패게 하라. 그러면 이중으로 따뜻해지는 걸 알게 된다.” 이 말 속에 자녀 교육의 요체가 숨어 있다.

사교육의 반짝효과?

필자는 서울지역 세 군데 초·중·고등학교 1,112명을 조사한 결과, 내신 평균은 과외집단이 비과외집단 보다 다소 높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격차가 줄어들고 상위권에서는 성적 역전현상도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저학년에서는 사교육의 반짝 효과가 있지만 이를 계속하면 결국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사라져 성적이 떨어지게 되며 과외, 학원을 맹신할 수는 없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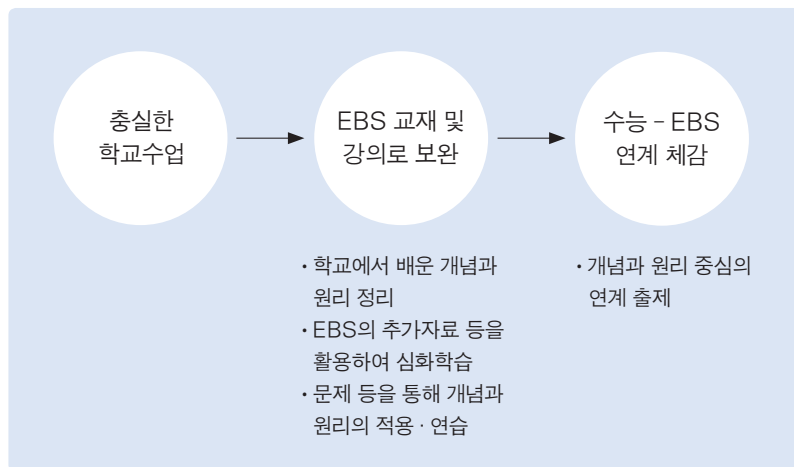
수능 준비, EBS로 충분할까요?

EBS 교재와 강의로 공부하면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다른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사이트도 좋은 게 많은 것 같은데, 정말로 다른 사교육 없이도 EBS만으로 수능 준비가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수업을 충실히 받고, EBS로 보완하면 충분한 수능준비가 가능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70%가 EBS 교재, 강의와 연계되어 출제됩니다. 문항을 그대로 출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수업을 충실히 받고 EBS로 보완하면 충분히 수능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EBS 연계

EBS 교재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많이 풀어본 학생보다는 교재에 나와 있는 핵심 개념과 원리를 EBS를 통해 충분히 이해한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게 출제합니다.

1. 연계효과를 수험생이 체감할 수 있도록 수능 출제

- 공교육 보완을 위해 개념과 원리 중심의 연계 출제 강화
- 연계효과가 높은 유형의 비중 확대, 지나치게 변형하지 않고 출제
- 영역별 만점자 1% 수준으로 일관성 있는 난이도 유지, 출제과정에서 정답률 예측력 강화

2. EBS 교재 수 축소, 강의 개선으로 수능 준비 부담 경감

- EBS 교재가 학교 수업의 보충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충실한 구성으로 개선
 - *EBS 교재 재구성 : 3단계(수능특강·10주완성·파이널) → 2단계(수능특강·수능완성)
- 연계대상 교재 수 대폭 축소 : 언·수·외 절반 수준(45권 → 24권)
 - *언어 10권 → 6권, 수리가형 17권 → 8권, 수리나형 7권 → 4권, 외국어 11권 → 6권 미만
- 6단계 수준별 강의에서 초·중·고급의 3단계로 강의 통합
- 연계 교재 전체 PDF 무료 제공, 인터넷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와 MOU 체결을 통해 교재 및 강의 지원
- 평가원 감수 및 검토과정 추가, 집필 이전 단계에서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실시 등 교재 집필 과정 개선



쉬어가기

상위 0.1%의 비밀



첫째, 공부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

0.1% 학생들은 내가 왜 지금 이 공부를 해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의욕에 가득 차있습니다.

둘째, 연습보다는 복습

0.1% 학생들은 복습을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여깁니다.

셋째, 정해진 공부시간과 나만의 공부방법

0.1% 학생들은 집중도를 높이는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으며, 정해진 공부시간을 항상 지킵니다.

넷째, 부모님과 많은 대화

0.1% 학생들은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늘 편안함을 느낍니다.

다섯째, 공부의 기본은 수업

0.1%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책보다는 선생님께 집중합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이야기는 신문이나 TV에서 많이 들었어요.
성적 외에 다른 것들도 준비할 게 많아 보이는데,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TIP! 자발적 노력과 진로에 대한 열정으로 준비하세요

입학사정관제는 학원의 도움을 얻어 쌓은 실적이나 컨설팅은 통하지 않습니다.
뚜렷한 장래목표를 세우고 학교에서 관련 교과활동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충실히 한
학생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스스로 노력하고 진로에 대해 열정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입학사정관제 준비, 학교생활에 충실하면 됩니다

입학사정관제는 학생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평가기준을 배제하고 공교육 활동 중심으로 평가하는 공통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입학사정관제 준비는 사교육이 아닌 충실한 학교생활이 중요합니다.

1. 입학사정관제 전형 평가 방식



〈평가절차〉
다수의 평가자
다단계 평가

〈평가방법〉
서류심사, 면접, 합숙,
학교방문 등 다양

〈평가자료〉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창의적
체험활동 이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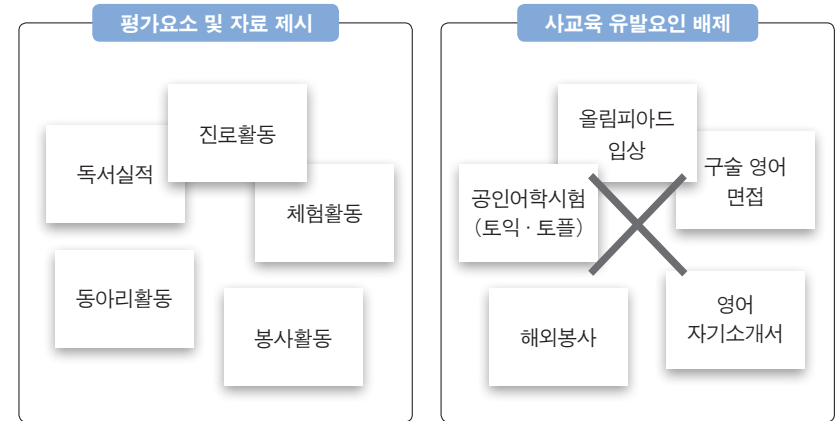
〈입학사정관제 선발규모(4년제대 입학정원 비율)〉

2010년	6.9%	2011년	10.4%	2012년	11.8%
-------	------	-------	-------	-------	-------

입학사정관제란?

학생이 고교시절 얼마나 충실하게 학교생활을 했는지, 무엇을 배우고 어떤 역량을 길렀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2. 입학사정관제의 사교육 유발요인 배제



- 공교육 활동 중심으로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 마련
- 사설학원의 도움 없이도 입학에 대한 상담 가능,
전문상담원과 현직교사들이 참여하는 '대입상담센터'를 운영
대교협 대입상담센터 ☎1600-1615 univ.kcue.or.kr
상담시간 | 월-금요일 9:00~18:00(8월-12월 09:00~22:00)

3. 입학사정관제 준비하기 TIP

- ① 자신의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
 -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 ② 충실한 학교 생활이 기본
 - 학교에서도 학업은 물론 리더십, 동아리, 체험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 ③ 자신의 진로 영역에서 주도적인 활동
- 방학이나 주말을 활용하여 학교생활에서 하기 힘들었던 경험을 실천하는 것이 좋다.
- 창의적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 www.edupot.go.kr
- ④ 활동 내용의 기록, 정리
- 입학사정관은 기록을 바탕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각종 활동들을 바로 정리해 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 ⑤ 평가서류는 진실하게 작성
-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는 자신의 특성과 학과에 대한 열정이 잘 나타나도록 진실하게 작성한다.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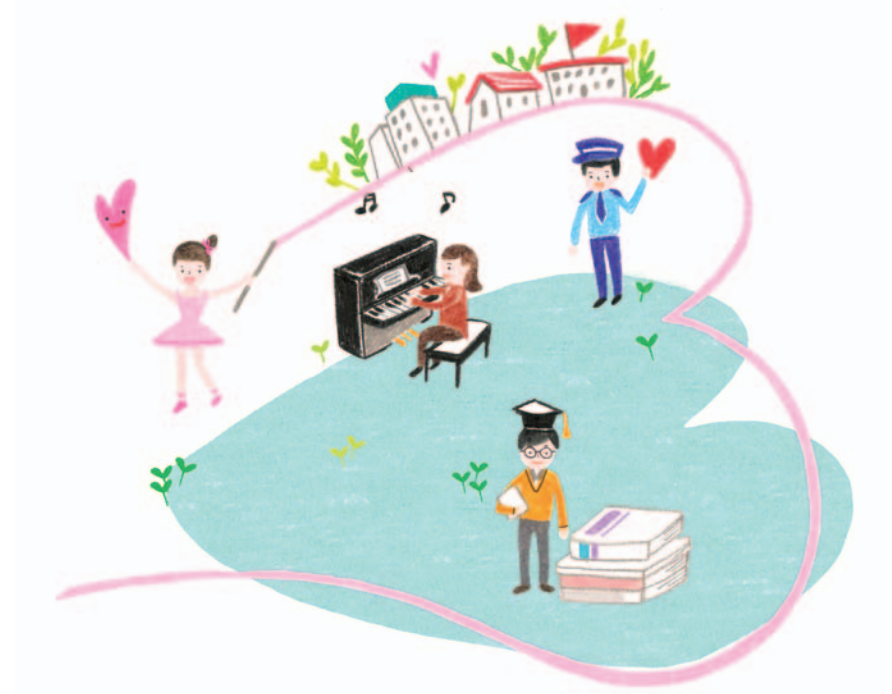
입학사정관이 말하는 합격 비결

깊이 있는 탐구심과 열정 : <평행우주>를 읽고 '신의 뜻을 알고 싶다'는 의문을 품은 후로 철학-심리학부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늘 철학서적을 탐독했다는 학생의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 A대 철학과

뚜렷한 비전을 따르는 한 길 : 가업을 이어 세계적인 요리사가 되겠다는 비전과 성실한 학교생활, 자신의 특기를 살린 요리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한 점, 요리를 학문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의지가 돋보였죠. - B대 식품영양학과

성적보다 중요한 건 아이의 진로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아이가 좋은 성적을 받아오는 것보다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빨리 찾았으면 해요.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교육이나 취업교육이 있나요?



학습과 진로는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로와 직업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본인의 소질과 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적성과 관계없이 성적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뚜렷한 목표를 갖고 학습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1. 체계적 진로교육 강화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진로정보센터)
 - 시·도교육청(진로진학지원센터) - 학교 간 연계체제 강화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커리어넷을 통해 다양한 진로정보 제공

진로교육 관련 사이트

교육과학기술부 고입 포털사이트 www.hischool.go.kr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커리어넷 www.career.go.kr

한국고용정보원 청소년워크넷 work.go.kr/youth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상담센터 univ.kcue.or.kr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진학진로정보센터 www.jinhak.or.kr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원 www.kyci.or.kr

2. 진로·진학 상담교사 확대

- 2011년 3월 전국 공·사립 고등학교에 1,500명의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치
- 2014년까지 전국 중·고등학교 5,383개교에 진로진학 상담교사 1인 배치

3-1. 고등학교 취업연계 교육 실시 - 마이스터고

-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 운영을 통하여 우수 기술 인재를 양성
 - 2010년 3월 전국 21개 마이스터고 개교, 2012년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대
- 기업 채용 약정 등 활발한 산학협력으로 졸업 후 우수기업 취업 지원
 - *1,145개 산업체와 협약, 1,802명 채용 약정 (전체 정원 3,600여명의 50%, 2010년 12월)
 - 공식홈페이지 www.meisterschool.or.kr
 - 공식블로그 blog.naver.com/meister2010

3-2. 고등학교 취업연계 교육 실시 - 산학협력 특성화고

- 기존의 전문계고를 산학협력 취업중심 특성화고로 정예화·집중 육성
- 691개교(2010년) → 산학협력 특성화고 350개교(2015년) 및 마이스터고 50개교(2012년)

-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직업교육을 통해 우수한 기술·기능인재 양성
 - *현장실습 지원(70억 원), 글로벌 역량강화사업(83억 원) 등 지원
- 취업 시 4년간 입영 연기, 재직자 특별전형 도입대학 확대 등 선취업 후진학 여건 조성
- 학비 걱정 없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
- 특성화고 학생(총 48만 명) 중 기지원자를 제외한 26.3만 명에게 연평균 120만 원 지원

	학교	취업	진학
사례1	거제공고	→ 삼성중공업	→ 삼성중공업 공과대학 (전문학사) → 부산대학교 계약학과 (학사)
사례2	제과제빵 특성화고 (신정여상 등)	→ (주)SPC 계열사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등)	→ SPC식품 과학대학 (전문학사)

<선취업 후진학 사례>

Interview

모두가 꿈꾸는 평범한 미래가 아니라 저만의 꿈을 선택했어요

전남 광양 한국향만물류고등학교 김승환 군

저는 대구에서 인문계고를 1년 다니다 왔어요. 성적도 좋았고, 학급 부회장
까지 하던 모범생이 다니던 학교까지 그만두고 오겠다는 데 반대가 많았죠.
하지만 꿈을 찾아 새로운 비전을 준비하고 싶었어요. 3년 후, 외국인들과 겨루며
그들보다 한발 더 앞서 나가게 될 겁니다.

일생을 좌우할 청소년기의 진로교육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승보 소장

청소년기의 진로교육이란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을 통해 성공을 거두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자신의 적성과 소질 이해, 직업세계에 대한 풍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이는 진로가 단순히 입시나 진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진로문제의 현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대부분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문제를 제대로 생각하거나 탐색해보지도 못한 채 상급학교나 직업세계로 내보내지고 있다. 문과·이과 선택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학의 전공조차 수능과 내신 점수를 바탕으로, 부모의 권고에 의해 순간적이고 우발적으로 선택되는 일이 다반사이다. 특기나 적성, 장래희망보다는 주어진 점수에 맞추어 전공불문하고 대학을 정하는 일이 더욱 시급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자기의 인생 목표와 진로에 대하여 깊은 고려도 하지 않은 채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한 결과가 신통치 못하다는 것이다. 4년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중도 탈락율은 4.1%(2009년)로 지난 20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었다. 무작정 성적에 맞게 대학과 학과를 선택한 탓이다. 또한 명문대학만을 좇아 성적 올리기 경쟁에 뛰어들다 보니 오히려 학력이 오르지 않는다는 점도 있다. 삶의 꿈과 인생의 목표가 없으니 학습의 동기와 열정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청소년기 진로교육, 일생을 좌우한다

자기주도적 학습이 공부하는 기술을 익혀서 될 문제라는 인식을 가진 이들을 볼 때마다 우려되곤 한다. 전남 영광의 해룡고등학교 사례는 이 문제가 공부기술보다는 학생들의 삶에 대한 태도 및 동기의 문제로 접근할 때 효과가 있다는 점을 잘 보여

준다. 이 학교는 올해부터 모든 신입생들에게 2박 3일의 진로캠프를 떠나게 하고 있다. 그 동안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진로캠프를 통해, 학생들에게 동기와 열정이 생기면 노력할 마음의 자세가 갖추어짐을 학교 구성원 모두가 확신하게 됐다. 삶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전략을 수립한 학생들은 학습에 있어서도 자기 주도성이 남다르게 발전되어 학력 향상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대학입시의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제 학생들에게 교과외의 선택적 구성,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 창의성과 리더십 함양을 꾀하는 일이 중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탐색하는 활동을 통하여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삶과 학습을 주도적으로 구성하는 일에 더 큰 비중이 실리게 되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자신의 인생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고 꿈에 도전하는 진로의식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명한 학부모라면 지금 당장 내 아이에게 진로탐색을 통해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일부터 시작할 때가 된 것 같다.

직업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의 커리어넷(www.careernet.re.kr)에서는 무료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를 토대로 본인에게 적합한 직업정보를 탐색할 수 있으며 직업과 관련된 학과와 전공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또한 해마다 발간되는 책자 <미래의 직업세계>에서는 직업과 학과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학원비, 왜 이렇게 비싼가요?

수강료가 비싼 학원은 그만큼 잘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기준으로 학원비가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학원 신고포상금제도란?

학원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가 불법, 편법 운영되는 학원을 찾아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불법, 편법 운영되는 학원을 신고하면 ① 학원비 초과징수 30만 원, ② 교습시간 위반 30만 원, ③ 무등록 학원·교습소 50만 원, ④ 미신고 개인과외 월 교습료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학원비를 안정화하고 학원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학원비 안정을 위한 계획은 학원법 개정으로 실천될 것입니다.
학원비 시범공개를 확대하고 불법·편법 인상을 막겠습니다.
학원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학원비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2011년 중점법안으로 학원비 공개 의무화 등 학원법개정 추진
- 학원비(수익자부담경비 포함) 공개 및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통해 학원비 편법 인상을 억제
- 학원 수익자부담경비 기준 마련

*수익자부담경비 정의, 인정 항목 설정 : 교재비, 보충수업비, 논술지도비, 자율학습비, 모의고사비, 방송(동영상) 수업비, 교통비, 기숙사비, 급식비, 재료비 등

2. 학원 신고포상금제도

- 신고처
온라인 신고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 학원부조리신고센터
방문 및 서면 신고 :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3. 학원중점관리구역 지정·운영

- 학원중점관리구역 지정 : 서울(대치동·목동·중계동), 경기(분당·일산), 부산(해운대구), 대구(수성구) 등 7곳
- 월별 사교육 현황(수강료, 수강생수 등) 모니터링 및 입시학원, 고액개인과외, 유아대상 어학원 등에 대한 집중 단속 실시

사교육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불안한 부모이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정일 교수

이유 없이 계속적으로 긴장감에 휩싸이며 미래에 닥쳐올지 모르는 확실치 않은 사건에 대한 근심을 불안감이라고 한다.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안도감을 얻기 위해 무언가라도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다루기 쉬울 수밖에 없다. 사교육은 불안한 부모들의 심리, 즉 자식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잘 알고 이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모들이 한번 사교육에 발을 들여 놓으면 빠져 나오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먼저, 공부 잘하는 우등생들의 공통적 특징을 알아야 한다. 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잘 안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인지능력을 볼 수 있는 메타(meta)인지라는 능력이 있는데, 우등생들은 이 능력이 뛰어나다. 모른다는 느낌과 안다는 느낌 사이에 확연한 구분이 있는 것이다. 그럼 사교육 시장은 무엇을 하는가? 모르는 걸 알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안다는 느낌”을 갖게 해준다. 그러나 안다는 느낌은 지겨움을 만들고 지겨움은 학교 수업을 등한시하는 습관을 기른다. 이런 습관이 낮은 성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 당혹스러운 현실은 또 다른 불안을 야기하고 학생들은 또다시 학원으로 향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학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효과적인 공부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이가 자신이 공부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상황과 시점이 언제인가를 스스로 파악하고 이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둘째, 학원에서 공부 방법을 모두 가르쳐준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학원은 모르는 것이 분명해지고 도저히 혼자 해결할 수 없을 때 가끔씩 들르는 사랑방이다. 학원은 우리 아이의 공부를 위한 안방이 아니다.

셋째, 아이의 발전에 기뻐해 주며, 낮은 성적에는 함께 슬퍼하자. 슬픔이 아닌 화를 내면 아이는 화가 만들어낸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안도감을 찾아 나선다. 그곳이 어디겠는가, 학원이다. 반대로 기쁨이라는 정서를 통해 아이는 공부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넷째, 불안을 느낄 때, “왜” 이 불안을 느끼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어떻게” 불안을 없앨까 생각하기 전에, 불안을 느끼는 원인에 대해 고민해본다면 근본적으로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

불안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심리 현상으로 불안이 없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불안의 노예가 된다면 안도감을 찾기 위해 맹목적으로 사교육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부모로서 나 자신이 그리고 내 자식이 불안에 얼마나 지배당하고 있는가를 항상 고민해 봐야 한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경계 알기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경계선을 분명히 알기 위한 좋은 방법은 설명을 하는 것이다. 설명을 해 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지점이 모르는 부분이다. 설명하기는 스터디 그룹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과 복습을 통해 나 자신에게 설명하기가 있다. 설명하기를 통해 자신이 모르는 것을 찾고,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바꾸는 방법 역시 스스로 찾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창의·인성교육넷 www.crezone.net

창의적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 www.edupot.go.kr

EBS 영어교육방송 www.ebse.co.kr

학교알리미 www.schoolinfo.go.kr

대교협 대입상담센터 univ.kcue.or.kr

교육과학기술부 고입 포털사이트 www.hischool.go.kr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커리어넷 www.career.go.kr

한국고용정보원 청소년워크넷 work.go.kr/youth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진학진로정보센터 www.jinhak.or.kr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원 www.kyci.or.kr

마이스터고 www.meisterschool.or.kr

발행처 | 교육과학기술부

세종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www.mest.go.kr

발행일 | 2011년 4월

편집 및 디자인 | 홍디자인

인쇄 및 제작 | 서울기획

